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국어 교과서 제재를 이용한 미디어 문식성 능력 육성 방안

(7, 8학년을 중심으로)



2012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신 미 애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국어 교과서 제재를 이용한 미디어 문식성 능력 육성 방안

(7, 8학년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채영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신 미 애

신미애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8월 24일



주 심 언어학박사 김 희 섭 (인)

위 원 문학박사 권 성 미 (인)

위 원 문학박사 채 영 희 (인)

【목차】

1.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선행 연구 검토	3
1.3. 연구 방법	6
2. 미디어 문식성 교육의 필요성	9
2.1. 미디어 문식성 개념	9
2.2. 교육과정에서의 문식성 교육	14
2.3. 국가별 문식성 교육 내용 비교	17
3. 매체에 따른 미디어 문식성 교육방법	23
3.1. 국어과에서의 매체별 문식성교육	24
3.1.1. 인쇄 매체	26
3.1.2. 영상 매체	29
3.1.3. 인터넷 매체	32
3.2. 국어교과서 제재별 미디어 문식성 교육 방법	34
3.2.1. 7학년 국어교과서의 미디어 문식성	34
3.2.2. 8학년 국어교과서의 미디어 문식성	39
4. 국어교과서 제재를 이용한 미디어 문식성 교육의 실제	46
5. 결론	63
참고문헌	68

【표 목차】

<표 1>2010년 중학교 지역별 선정현황	7
<표 2>미디어 문식성 교육에 사용 될 매체의 순기능과 역기능 비교	12
<표 3>우리나라의 미디어 교육의 시기별 특징	15
<표 4>국가별 미디어 교육의 이론 적용 형태(대표 사례 분석)	18
<표 5>미디어 문식성의 역사 개관	23
<표 6>NIE 주요내용	26
<표 7>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7학년)	34
<표 8>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8학년)	39

Development strategy for media literacy ability using material of
korean textbook

Mi Ae Sh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resent article defined a change in the concept of literacy as more critical and autonomously understanding learning with that as a criterion,

Thus the author attempted to find items to be instructed to learners through analyzing media sanctions of textbooks revised in 2007 to consider functions of the media. And with the criteria for selection of junior high school textbooks as basis, those ranked in top three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subject contents of 7th and 8th grades,

First, the present article compared and considered features of each media with its scope for media utilized for media literacy limited to printed media, visual media, internet media After that, media literature education has been considered as per each country. For the education of our country, education subject and utilized media, education process and education method were compared with media utilization period as a criterion.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United Kingdom, Australia that has a high utility of literacy education by setting a viewing education domain, and Canada that mandated media learning of the national language subject as a duty over 1st through 8th grades have been investigated.

And with actual achievement criteria of narration at 7th and 8th grades as a foundation, features of diverse media were considered. Learning through diverse media enables even diverse experience using learning, let alone voluntary feature learning of the media. However, media literacy learning is a

learning that has too great an influence to ignore the connectivity with adjacent studies for begging the question as a learning that understands media critically and voluntarily. In other words, if the scope of literacy learning utilizing media is limited to a learning with utilization of internet media, the learners were required of an ability to correctly accept the broad information provided by internet. When learning the literacy taking into account even such critical activities, we come to realize how important the connection is with adjacent studies. Hence the author mentioned simply about reading learning as a connected learning. Reading learning is an area much discussed in simple literacy before media literacy was mentioned. However, when viewed from the connecting aspect with adjacent studies among features of media literacy, the learning is not a simple text learning but may be proceeded with the use of scripts of a drama, a movie, or a play, or discussion or debate learning may be implemented with characters as a subject matter as well. Also, the learning activities may be broadened to composition activity such as fabricating of follow-up stories

Naturally, for actual application of such diverse activities, the teachers' role in a school environment is important. For learners' voluntary and active participation, instructors' role may be somewhat belittled. However, prior to have learners' activities to proceed, the instructor should play the role of a strong helper so that the learners may select correct information.

In educating literacy learning for learners utilizing diverse media, the learners accepting it should accept it with an active attitude and as a form related to adjacent studies in its connectivity, identify characters of diverse media and make an effort to experience learning that actively utilizes it. Instructors' roles as well as learners' effort are expected to be important for such learning to proceed without delay.

Until now, diverse media presented to 7th and 8th grades and cultivation of literacy capability using them have been considered. To efficiently cultivate this, a proper analysis of features about media and efforts by instructors and learners participating more actively in such media utilization seem to be necessar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능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 현대인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의사소통과 지식은 단순한 문자사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과 더불어 행하게 된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교육과정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인다. 이에 따라 국어과 수업의 교수·학습활동, 특히 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에서는 현대사회의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교육으로 미디어 교육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이 시도되었다. 현 국어과 학습에서는 매체를 사용한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학습 목표이다. 교육의 주체가 교사에서 학생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 정보의 습득이 교과서 외의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열린 교재관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한 학생들의 정보 습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을 살펴보면 이러한 중요성에 부합하여 제시된 학습 목표와 매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

다. 그 이유는 학교란 한정적 공간에서의 문자 언어의 표현과 이해, 그에 따른 학습활동 등을 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그 결과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 활동이 생략되기 때문이다. 뛰어난 지적 흡수력으로 보다 넓은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는 청소년에게 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나 효율적인 매체 교육에 대한 대책이나 긍정적 학습 활동은 부진하다.¹⁾ 매체는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촉진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동기를 유발하며 자연스러운 습득을 통한 인지발달을 촉진한다. 이에 매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학습자는 각종 매체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창작 활동은 물론이고 분석적이며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말하기·듣기의 효율적인 학습활동을 위해 단순한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의 사용에서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음성, 문자, 이미지 등의 복합적 매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어 학습을 통해 한국인의 삶에 배여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사용을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한국교육 개발원, 1997)²⁾

이에 따라 본고는 2011년 현재 부산의 7, 8학년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중 선택의 빈도가 높은 상위의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여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는 학년별 성취기준을 토대로 매체 사용에 관한 교육적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변혜경(2001:3)은 청소년들의 삶에 다양한 대중매체가 자리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교육적인 대책이나 활동은 빈약함을 주장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 국어과 교육과정 고시 제2007-79호.

1.2 선행연구 검토

국어 교육에서 매체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매체 언어를 국어교육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어과에서 이러한 매체 언어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7차 교육과정의 적극적인 매체 언어의 도입과 함께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매체를 활용한 연구에 관해 살펴보자.

대중문화가 생활화 되면서 대중매체의 활성화를 현대 사회의 구조적 특징의 하나라고 내세운 구인환(1992)은 매체의 활용 범위를 논하면서 특히 문학교육에 있어서 광범위한 대중매체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체제의 다면화, 문화적 체험의 다면화 등의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여러 가지 매체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공명철(2001)은 읽는 형식의 소설 감상보다는 영상만화식 프로그램을 고안한 뒤 그것을 실제 수업에서 활용했을 때의 학습효과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윤명숙(2004)은 영상매체와 소설, 그리고 영상매체의 교육적 활용에서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했다.

국어 생활과 매체 환경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 매체의 한계를 밝힌 이승민(2005)은 시 분야에서 매체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특히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을 구체화하여 이를 수업에 적용해보고 그 결과 학습자의 시 감상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매체와 매체 언어 교육을 관련한 연구도 볼 수 있다.

김대행(1998)은 미디어 텍스트는 사회적 관계와 많은 영향을 받음을 지적하고 국어교육의 비판적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매

체와 매체언어 그리고 매체 텍스트의 차이점을 불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매체를 도구적 활용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그 한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김대행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매체의 소통 경로와 양식적 의미를 새롭게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이채연, 최병우, 최지현, 2000.)

이러한 논의는 매체 언어 그 자체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매체와 매체언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논의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그와 관련된 논문을 시대별로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다.

매체 언어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로 이종철(1998)은 쌍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중매체의 이해능력 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능력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면서 대중매체의 교육을 인쇄 매체와 전파 매체로 나누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매체언어교육의 초기에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구경희(2001)는 매체언어교육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서 독자적 영역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내용구상 방안과 교수·학습 방안 그리고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고 국어과에서 매체교육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매체언어에 대한 교육’만을 범위로 설정했다는 데 그 한계를 보인다. 다시 말해 이러한 연구들이 이론적 차원의 논의에 그쳐 실천적인 담론으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있다.

김정자(2002)는 미디어가 지닌 고유한 언어사용의 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교육과 미디어 교육의 연관성을 찾는 동시에 국어교육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 수용하기 기대하고 있다. 이후 김희동(2005)에 와서야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매체언어교육의 수용을 위한 교육과정 영역의 설정과 내용 체계 구성방안 그리고 교재 구성 및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했다.

안연진(2005)은 인쇄 매체와 방송 매체 그리고 인터넷 매체 등이 국어교육에서 지니는 의미를 분석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방법을 점검한 뒤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한다.

이주옥(2007)은 그동안 그 판단기준이 모호했던 매체와 매체 언어, 그리고 매체 언어교육 내용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매체 언어 교육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영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매체언어교육은 그 본질이 의사소통에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매체언어를 국어과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앞선 연구들은 언어활동을 돕기 위한 보조 자료로서의 역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다양한 매체 다시 말해 미디어와 그와 관련된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과 그 역할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의사소통과 가장 큰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국어과와 관련한 미디어 문식성교육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김대행(1998)은 미디어 교육이 국어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 그에 따른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후 옥현진(2002)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디어 문식성을 중심으로 국어과에서 매체 영역 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교육과정 설계와 그에 따른 자료 개발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켰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그 논의가 이론적이며 기존의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에서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으로 심상민(2003)은 국어과에서 미디어 교육이 행해져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밝히며 그 현황과 방향성을 언급한다. 이 연구는 국어 교육

에서 언어와 언어 교육 개념의 재정의와 이 둘 사이의 지식 구조의 유사성 그리고 목표 측면의 유사성 등을 밝히며 국어과에 수용될 미디어 교육의 방향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윤정민(2003)은 본격적으로 미디어 문식성교육을 위한 국어과 교재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연구는 미디어 문식성 교육영역을 국어과 기능 영역의 일부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지만 실천을 위한 실제적 논의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다.

김희동(2005)은 국어 교과 내 미디어 수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국어 교과에서 미디어 교육을 수용함에 있어 교육 과정 및 교재 구성과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한 연구이다.

앞선 미디어와 미디어 문식성 그리고 그와 관련한 미디어 문식성 교육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다. 특히 미디어라는 개념이 지닌 특성상 새로운 미디어가 개발되면 그와 관련한 교육적 발전방향을 앞 다투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실제 교과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미디어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러한 미디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밝히기 위해 미디어 문식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각 국가별 미디어 문식성의 발전모습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후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실제 교과서에 제시된 다양한 미디어 문식성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3 연구방법

기존의 연구들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매체 혹은 매체 언어의 활용과 수용실태, 그에 따른 교실 상황에서의 변화 등을 연구하였다.

이에 본고는 우선 본론에서 미디어 문식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미디어 문식성 교육의 필요성과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미디어 교육은 그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관, 시민단체, 여성, 노인, 교사, 장애인 등 그 범위가 넓다. 따라서 본고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므로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미디어를 분석해 봄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문식성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할 교과서는 7, 8학년의 상위 3위까지를 그 기준으로 하지만 7, 8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2007개정교육과정의 적용시기가 2011년에 7, 8학년은 적용이 완료된 반면 9학년은 그 적용시기가 2012년도이기 때문에 본고의 집필 시기와 그 적용시기가 맞지 않아 7, 8학년 교과서만을 그 제재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여 각 학년의 성취기준에 맞도록 미디어 활용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미디어들의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 분석 시 사용될 교과서는 7, 8학년의 일관성을 위해 7, 8학년에서 공동으로 선정된 교과를 그 대상으로 한다. 즉, 7학년에는 선정되었으나 8학년에는 선정되지 못한 교과서는 분석 자료로 채택하지 않았다.

<표 1> 2010년 중학교 지역별 선정현황

NO	출판사	전국계	점유율	순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1	해냄에듀	6,444	0.9%	17	1,725		370	
2	미래엔컬	25,304	3.5%	11	7,205	2,257	1,096	
3	미래엔컬	9,257	1.3%	15	2,372	615	967	624
4	교학사	74,408	10.2%	3	6,292	6,405	4,430	5,568

5	교학사	남	33,085	4.6%	10	4,067	2,354	1,181	2,284
6	(주)지학	방	45,552	6.3%	7	10,125	3,721	2,411	2,971
7	(주)지학	이	5,491	0.8%	18	900	1,039		
8	금성출판		12,599	1.7%	14	1,891	340	2,195	908
9	천재교육	김	63,951	8.8%	5	11,918	3,252	2,091	4,182
10	천재교육	노	68,902	9.5%	4	19,915	2,411	2,481	3,309
11	천재교육	박	107,166	14.8%	1	18,877	3,232	7,043	3,885
12	대교	박	2,992	0.4%	20	324	1,008	342	256
13	대교	왕	7,034	1.0%	16	876	1,545		
14	창비		33,440	4.6%	9	8,143	1,341	2,165	1,078
15	디딤돌	김	23,380	3.2%	13	5,973	1,487	265	2,984
16	디딤돌	이	47,785	6.6%	6	11,996	4,498	4,641	4,455
17	새롬교육		163	0.0%	22				
18	비유상징		85,034	11.7%	2	10,660	4,005	5,416	5,022
19	두산동아		25,097	3.5%	12	2,069	1,561	1,168	51
20	유웨이중앙		3,691	0.5%	19	666	303		
21	웅진썸크		1,809	0.2%	21		235		474
22	좋은책		43,567	6.0%	8	5,974	6,479	837	1,834
합계			726,151	100.0%		131,968	48,088	39,099	39,885

<표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학년의 교과서 선정은 위의 표를 기준으로 하되, 2학년 교과서 선정기준에 따라 1학년 교과서 목록에서는 합격했으나 2학년 교과서에는 불합격된 천재(박), 천재(김), 교학(김), 디딤돌(이), 두산동아, 유웨이중앙, 웅진을 제외한 상위 3위 교과서인 좋은책 신사고, 비상교육, (주)지학사(방)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 때 분석 될 미디어는 각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미디어 문식성 교육의 필요성

2.1 미디어 문식성 개념

인간에게 언어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 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는 고대에 그림과 몸짓, 소리 등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하지만 의사표현의 수단은 몸짓이나 그림에서 점차 발달하여 문자 중심의 의사소통으로 이어졌다. 이 문자는 지적 척도를 재는 귀중한 기준이 되었으며 이러한 문자로 이루어진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이것이 바로 문식성(Literacy, 리터러시)이다. 문식성이란 문자나 문학 또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들과 관련된 개념이다. 문식성을 국어적 측면 뿐 아니라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의 단계인 글을 아는 단계를 의미한다. 처음에 'literacy'란 개념은 서구에서 구텐베르크에 의해 활판 인쇄술이 보편화되어 문자 언어의 인쇄가 가능해진 19세기 중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literacy의 개념은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수용과 그를 이해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문식성'의 의미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서서 여러 형태의 지식적 사고와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본격적인 정보화시대에 돌입하면서 이미지와 메시지 등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시각적 요소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진, 영상, 컴퓨터 등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의사소통의 방식도 과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색채, 소리, 이미지 등의 활용으로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은 문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양한 시청각적 요소들로 그 범위를 넓혀가기 시작한다. 그동안 기본적인 텍스트 위주로 언급되던 문식성에 관한 개념이 사진과 표에서부터 크게는 드라마, 영화와 같은 영상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는 문식성 개념의 변화에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문식성, 다시 말해 문식성이라는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영상 미디어와 결합하여 ‘미디어 문식성’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미디어 문식성은 시청각적 텍스트를 통해 사회·문화를 읽고 쓰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다. 즉, 미디어를 통해 학습된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쓰거나 읽기 등으로 연관되어 발전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라디오 대본을 보고 미디어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러한 라디오 대본의 특성만을 고려하는 것에서 학습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라디오 대본을 써보는 쓰기 활동이나, 다른 사람의 대본을 보고 비판하는 등의 읽기 활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총체적 언어 교육이 포함된다. 이러한 미디어 문식성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먼저 미디어 문식성의 개념을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고, 그것을 분석 및 평가하는 의사소통능력”이라 정의한 미디어 교육 협회(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on Media Literacy)의 개념 정의를 필두로 하여 “인쇄 매체와 비인쇄 매체의 기호(상징) 및 그 관련성을 이해, 사용, 조절할 줄 아는 능력”으로 파악한 미국 영어 교사 협회에서도 미디어 문식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문식성은 주로 북미 지역에서는 ‘미디어 문식성’이라 명명하고 영국과 유럽 그리고 호주 등에서는 ‘미디어 교육’이라 한다. 이렇게

국가나 그 지역마다 미디어 문식성을 나타내는 말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미디어를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학습’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해할 수 있다. 주체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은 미디어를 받아들임에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스스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학습자들은 넘쳐나는 정보 중에 옳은 정보와 그른 정보를 따지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 교사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태도와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학습자들은 그 길을 잃지 않고 잘 적응해 나갈 것이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의 의사소통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던 수용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의사소통을 영위하게 되었다. 미디어 문식성은 우리를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소비자로 변화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여건중(2005)은 ‘미디어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구성하며 세계를 재현하며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보편적 관점인 것처럼 내면화되어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생산되는가 하는 것이 미디어 문식성의 중요한 기능이다. 또한 이는 재현을 거슬러 읽는 능력을 만들어 주고 더 나아가 우리를 재현의 주체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미디어 문식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우선, 매체란 것을 활용하여 학습을 할 경우, 학습자는 교과서에 제시된 단순한 텍스트만으로 학습할 때보다 큰 흥미를 갖게 된다는 점이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을 진행할 때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제시되는 매체들의 특성과 그들이 가진 다양한 성격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은 매체를 활용할 때 학습자들이 부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사용할 경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교실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는 지식적인 문제에 관한 토론이나 토의 등을 통한 비판까지 경험하게 되어 보다 넓은 지식의 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생활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순기능 못지않게 그에 따른 역기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차적으로 미디어는 본질적으로 텍스트나 기계 등을 통한 비인간적 커뮤니케이션이다. 따라서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기계적 조작이나 처리에 의한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진술할 수 없고 인간적 커뮤니케이션의 상실을 불러오게 된다. 또한 다양하게 접하게 되는 정보의 진위여부에 대해 학습자들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판단력이 세워져 있지 않다.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질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활용한 학습을 할 경우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사는 학습자들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학습을 경험하게 될 경우 그것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학습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며 소극적이거나 수동적, 종속적 상태에서 벗어나 미디어 수용에 있어 능동적, 적극적, 주체적 수용 능력을 가지도록 올바른 미디어 문식성 교육이 행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재형(2004:18-20)에서 학습자들이 인지해야 할 미디어 문식성 교육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표2>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2> 미디어 문식성 교육에 사용 될 매체의 순기능과 역기능 비교

	순기능	역기능
1. 환경의 감지 ① 경고	① 기상의 변화, 전쟁 위협 등을 대비한 자연적인 위	① 과잉 보도로 인한 공포 수단으로의 전락

② 도구로서 작용 ③ 규범 노출	협 등에 대처. ② 경제나 사회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 ③ 인간 또는 사건과 관련된 옳고 그른 것의 기준 제시	② 마취효과(무감각, 수동성, 과잉 영상) ③ 과대한 규범 노출로 인한 판단의 혼미
2. 상호 연결 ① 사회 규범 강화 ② 지위 부여 ③ 사회변화와 개혁을 저지	① 기존 도덕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시도에 대한 경고로 인한 일탈을 노출 ② 일부 계층에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여 지도자를 생성하며 여론을 청취하고 여론을 관장(토론의 전개) 또한 정부의 횡포가 존재할 경우 이를 견제	① 고정관념의 고착화 ② 지위와 관련된 실재와 차이를 보이는 이미지 창출 ③ 여론을 관장함에 있어 다수의 횡포 존재, 사회변화와 개혁을 저지.
3. 문화 전달 ① 사회 응집력 ② 소외감 감소 ③ 지속적인 사회화	① 공통 경험의 확장 ② 사회 참여의 확대 ③ 사회 교육의 활성화	① 다양한 차등 문화에 의한 위축 ② 비인간화, 개인적 접촉의 부족 ③ 표준화 경향의 강화
4. 오락의 제공 ① 개인적 휴식 ② 대중문화 창조 ③ 취향, 기호의 제고	① 자연으로의 몰입, 여가선용 ② 고급문화 보급의 중화 및 확대 ③ 취미 생활의 다양화	① 여가에만 몰두 ② 순수예술의 위축 ③ 취향의 저급함 및 발전저해

<표2>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 현재의 관점과 관련이 멀어 보이는 기능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쇄 미디어와 영상 미디어 그리고 인터

넷 미디어로의 발전을 거쳐 오면서 생겨나게 된 특징이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수용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미디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순기능만 강조하게 된다면 미디어에 순응하는 인간을 육성하게 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지나치게 역기능만을 강조하게 될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도태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디어를 사용하여 문식성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이 중요하다.³⁾

2.2. 교육과정에서의 문식성 교육

미디어 문식성 교육은 그 대상이나 목표설정에 따라 다양하게 실행 될 수 있다.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학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단체 등을 통한 성인의 일반적인 교육 혹은 재교육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학교 교육 안에서의 미디어 문식성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체계적인 관점과 내용으로 연구되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 미디어 문식성 교육을 살펴보면 과거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안 독재 권력에 의해 미디어 문식성 교육이 일부 사회단체를 통한 저항적인 언론 감시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 이러한 이유로 교사나 미디어 문식성 교육을 담당하는 이들

3) 김원영(2009:19-20)은 다양한 미디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에게 비판적 시각을 가는 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4) 변혜정(2001:11)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진행된 미디어 문식성 교육이 일부 사회단체

사이에서 문식성 교육을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규범적으로 접근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만을 강조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미디어 문식성은 대중 매체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운 수용자를 양성한다는 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태도로 미디어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통한 즐거움과 깨달음을 알게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환경에 따라 변하게 되며 그 교육대상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표3>을 통해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의 시기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우리나라의 미디어 교육의 시기별 특징5)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교육 대상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한 여성, 일반인	여성, 일반인	여성, 일반인,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단체 실무자, 교사, 비디오숍 경영자	여성, 일반인,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단체 실무자, 교사, 비디오숍 경영자, 노인 등 다양한 계층
대상 미디어	방송매체	방송매체, 영상매체	방송매체, 영상매체	방송매체, 영상매체, 케이블 TV, PC 통신, 광고, 만화, 인

를 통한 저항적인 언론 감시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살피고 있다.
5) 안정임(1998:63)이 우리나라의 미디어 교육이 시기별로 어떠한 변화를 했는지 연구한 것이다.

				터넷
교육 과정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매체 중심의 교육과정과 개념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개념 중심 교육과정의 정착
교육 방식	강의식	강의식	제작, 분석, 토론식 교육	제작, 활동교육 확대
교육 형식	모니터 교육	모니터 교육	모니터 교육, 캠프, 워크숍	모니터 교육, 캠프, 워크숍

<표3>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미디어교육은 교육대상과 대상미디어, 교육과정, 교육방식, 교육 형식 등에서 상당한 발전과 변화를 이루어왔다. 처음 시작에는 모니터 요원이나 일반인을 중심으로 행하던 교육대상이 점차 발전하여 여러 계층으로 발전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단순한 방송 미디어에서 만화와 광고로 까지 발전하게 된 것으로 보아 기존의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과 시각적 미디어는 물론이며 쌍방향적이라는 특징을 지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언어생활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대가 변하면서 그를 향유하는 계층, 사용하는 미디어의 종류, 그러한 미디어를 교육하는 방식 등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미디어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의 태도 역시 변해야 한다. 기존의 한정적인 미디어에서 보다 광범위한 성격을 지닌 미디어를 받아들이면서 이를 조절하는 능력도 필요해졌다. 다시 말해 여러 과정으로 다양한 성격을 지닌 과잉 정보를 스

스로 탐색하고 이를 본인 위주로 재 정보화 한 후 자기화하는 과정을 통해 과대하게 많은 정보를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는 능력이 학습되어야 한다.

2.3. 국가별 문식성 교육 내용 비교

미디어 문식성 교육은 그를 둘러싼 환경과 함께 변화한다. 이에 따라 미디어 문식성 교육은 국가별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선, 국가별로 미디어 문식성 교육의 실행형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외국의 경우 미디어 문식성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주로 수동적인 학습자를 육성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학습자들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함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디어 문식성 교육을 위해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비판적인 시각을 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각 학교별로 필요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사회단체가 주도하여 많은 학습자들이 이러한 미디어 문식성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차원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표4>를 통하여 다른 나라가 어떠한 방법으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표 4> 국가별 미디어 교육의 이론 적용 형태(대표 사례 분석) 6)

국가	적용 이론	적용 패러다임	실행 형태
영국/프랑스 등 유럽지역	도덕주의 이론 이미지, 상징, 표상 체계	표상 패러다임	학교 교육(정부주 도)
미국/캐나다	비판적 시청자 도덕주의 이론	비판적 시청자 패러 다임	학교 교육(주 단위 교육) 사회단체 교육(비영 리 단체)
호주	비판적 시청자 이미지, 상징, 표상 체계	미디어 해독 패러다 임	학교 교육(정부주 도)
독일	비판적 시청자 도덕주의 이론	미디어 해독 패러다 임	사회단체⇒교육단체
남미	참여 커뮤니케이션 비판적 시청자	비판적 시청자 패러 다임	사회단체
아시아	비판적 시청자	보호주의 패러다임 (접종/대중예술)	사회단체
유네스코	정치경제학 이론 참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해독 패러다 임	학교 교육/사회단체 교육

<표4>과 같이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디어 문식성 교육이 행
해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 문식성 교육 중 영국과
호주, 그리고 캐나다를 선정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영국

영국의 미디어 문식성 교육의 경우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다소 늦은
1980년대에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빠른 속도로 큰 발전을 보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영국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육 TV’에 대한 논의가 발

6) 김양은(2009:192-200)이 국가별로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미디어 메시지의 감상과 용어가 학교에 반영되면서 미디어 문식성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학교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대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던 영국의 미디어 문식성 교육은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1988년 이후 영국은 최초의 국정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미디어 문식성 교육을 자국어교육 안에 포함시켰다. 이 교육과정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초등교육과정은 5세부터 11세까지 연령을 포함하는데 이 교육과정은 활자의 이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말하는 영상 해독을 요구한다. 이루 11세부터 16세에 해당하는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읽기 교육 영역을 총 4가지로 나누어 ‘영문학 유산’, ‘타문화·전통에 의한 텍스트’, ‘활자 매체·정보 기술에 의한 텍스트’, ‘미디어와 동영상’로 살펴본다. 이 때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신문, 잡지, 광고와 텔레비전, 영화 그리고 비디오가 학습의 대상이 되어 문자 중심의 텍스트가 아니라 시각적 문식성까지 확대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미디어를 수용하는 교육 목표가 아닌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하였다.

2)호주

호주의 미디어 교육은 타 외국의 교육과 비교해봤을 때 미디어 문식성 교육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호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매스 미디어 교육과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소수 상임 연구원의 시범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반응을 연구 분석하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 교육위원회에서 미디어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면서 호주의 본격적인 미디어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호주의 경우는 각 주정부별로 교육과정에 있어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미디어 교육에 관한 내

용은 기존 교과에서 수용됨을 알 수 있다. 호주의 경우 특히 영어 교과에서 ‘말하기/듣기’, ‘읽기/보기’, ‘쓰기’의 영역으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다른 영역은 다른 국가와 별 차이가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보기’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기란 영역은 1994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도입된 개념으로 여러 가지 시각적 메시지가 생산되고 이는 시각적 텍스트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점점 더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안정임·전경란 1999:17-20) 이러한 성격을 지닌 영국의 교육과정은 미디어 문식성의 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성공적인 실험, 그리고 교실에 적합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등에 힘을 얻어 성공적인 교육과정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3)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미디어를 수용하는 데 있어 비판적인 태도와 이슈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사고하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캐나다의 미디어 문식성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형태의 메시지에 대한 이해, 미디어 교육 구조에 대한 이해, 미디어 지배에 대한 논의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는 구체적으로 캐나다에서의 미디어 교육의 이론적 배경이 비판적 시청자 이론에 입각해 있으며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학적 이론과 사회·경제적 상황 이론에 입각한 미디어 메시지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⁷⁾ 캐나다의 경우 1995년 개정 커리큘럼에 의해 1학년부터 8학년 까지 국어과목에서 미디어의 학습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캐나다는 미디어 교육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됨은 물론 10개도와 2개의

7) 김양은(2009:192-200)은 캐나다의 미디어 교육이 비판적 시청자 이론에 입각해 있으며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학적 이론과 사회·경제적 상황 이론에 입각한 미디어 메시지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주장한다.

북부지역에서 각기 독립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적인 체계에 의하여 미디어 교육에 관한 입장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이들 중 온타리오 지역에서는 국어과 안에 ‘미디어 학습’이라는 영역을 새로 설정하여 교육하였다. 이를 보고 캐나다 지역에서 국어과 교육과 관련한 문식성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됐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이러한 미디어 문식성 교육은 국어과에서 다루어짐과 동시에 지리, 사회, 예술 등의 과목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캐나다 1/3의 인구를 온타리오 지역에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 움직임을 캐나다를 대표하는 움직임이라 인식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디어 문식성과 관련하여 각 국가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문식성에 관한 이해와 비슷하게 외국의 경우도 학습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가 아니라 이를 발전시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유도하는 것이 그 목표라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문식성 교육에 대한 그 기준을 세워보고자 한다. 미디어란 개념은 자칫 잘못 수용하면 그 자체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수단적 가치로 생각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미디어 문식성 관련 외국의 사례의 경우들 중 앞에서 언급한 호주의 보기 교육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호주는 자국어 교육 안에 포함되어있는 미디어 교육을 국어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내용 조직으로 보고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미디어 관련 자료들을 앞서 언급한 ‘보기’ 영역과 관련지어 보면서 학습자들에게 이를 독립적인 내용 조직이 아닌 다른 내용조직과 연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쓰기나 읽기 능력 계발과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학 교육이나 언어 체계 요소 등에 대한 시각도 새롭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호주는 각각의 학습내용이 독립적으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제시되어 있고 이러한 활동은 교사가 주도하는 학습이 아니라 학생이 주도하는 학습자 위주의 수업 진행, 그리고 텍스트 위주가 아닌 다양한 활동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또한 인식 할 수 있다.

이러한 호주의 교육 내용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미디어를 활용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려는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호주의 ‘보기 교육’의 여러 가지 특징을 인식하고 이러한 요소가 반영된 우리나라의 미디어 문식성 능력의 육성을 위한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분석해보겠다.

3. 매체에 따른 미디어 문식성 교육방법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한 학습은 그 자체의 활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학문과의 연계성까지 고려하여 진행된다. 인쇄 미디어인 신문 기사를 이용하여 학습을 유도할 경우 기사에 실린 내용을 파악함과 동시에 기사문을 쓸 때의 장르적 글쓰기 형식까지 인지하게 된다. 또한 학습자는 기사문의 형식을 비교하면서 더 나은 기사문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직접 기사문을 쓰는 활동까지 행할 수 있다. 이후 다른 학생들의 기사문을 돌려보는 활동을 통해 타인의 기사문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안목까지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디어 교육은 그 미디어 자체가 지닌 특성을 아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게 하며 인접학문과의 연계성도 고려하게 된다. 국어과 내에서 등장하는 미디어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실제 교과서 성취 기준에 따라 미디어의 교육방법을 살펴 보도록 하자. 여기서 다루어질 다양한 미디어는 그 역사적 발생 순서를 고려하고자 한다.

미디어 문식성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5> 미디어 문식성의 역사 개관⁸⁾

연도	내용
1492년대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 소개 - 언어 문식성에 대한 연구

8) 주용완, 배영(2008:5)에서 미디어 문식성의 역사 개관을 설명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1890년대	에디슨을 중심으로 한 영상 기술의 도입 - 시각 문식성(Visual Literacy)
1930년대	영국의 IMI사의 텔레비전 시스템 개발 및 방송 실현 - 텔레비전 문식성
1980년대	정보화의 물결 - 컴퓨터 문식성
1990년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 네트워크 문식성, 기술 문식성, 디지털 문식성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해봤을 때 미디어는 인쇄 미디어, 영상 미디어, 인터넷 미디어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멀티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기술과 사회에 대한 멀티플 문식성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발전의 순서로 보아 인쇄 미디어의 역기능을 보완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인 영상 미디어가 등장하였고 이러한 영상미디어의 역기능인 능동적인 학습자의 육성을 위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미디어가 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발전한 다양한 미디어를 수용하는데 있어 이를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이 요구되었다. 쉽게 말해 영상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사용법을 익혀야 했으며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그를 사용할 수 있는 도كن 컴퓨터 등의 사용법을 익혀야 했다. 이제 이러한 도구적인 수단의 인식을 벗어나 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럼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미디어를 분석 하겠다.

3.1. 국어과에서의 매체별 문식성 교육

앞서 언급했다시피 미디어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메시지를 소통시키는 수단이 되는 도구 혹은 매개체⁹⁾를 뜻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본다면 미디어는 기호체계와 그것을 담는 그릇의 기능을 하는 미디어로 정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미디어를 그 자체의 매체, 다시 말해 국어교육을 위한 하나의 도구적 가치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각각의 미디어의 성격을 인식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문식성 능력을 육성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인 매개체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와 문식성을 합친 개념으로 보는 이와 같은 미디어 문식성이란 개념은 이전에 우리가 인식하던 단순히 읽고 쓰는 문식성에서 보다 발전되고 큰 범위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개념의 미디어로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포함하여 영상이나 각종 도표, 기호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개념의 미디어로는 책,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디어 문식성(문식성, literacy) 교육’에서 ‘미디어’는 ‘매스미디어’를 일컫는 것이 보통이다(박기범, 2001:14) 또한 1979년 미디어 교육에 대한 UNESCO의 정의에 의해서도 미디어를 매스 미디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¹⁰⁾

미디어 문식성 교육을 위한 미디어를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쇄 미디어, 영상 미디어, 인터넷 미디어를 대상으로 이 미디어 문식성 교육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러기 위해 먼저 각 미디어가 가진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미디어가 7, 8학년의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9) 여기서 인식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지금까지 ‘미디어(media)’로 통일되어 온 용어를 교육 과정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매체’로 갈음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에서는 ‘미디어’를 ‘매체’란 용어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 활용을 고려하고자 함이다.

10) “미디어 교육은 사회에서 미디어가 점유하고 있는 위치,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 적극적인 미디어 수용 태도 확립, 미디어가 전달하는 내용의 수용 양식에 참여하고 수정하는 것, 미디어에 대한 접근(access)과 미디어의 창조적인 작업의 역할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최창섭(1998:371에서 재인용)

활용되는지 각 학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그 수용기준을 살펴보도록 한다.

3.1.1 인쇄 매체

인쇄매체¹¹⁾란 인쇄를 이용해 만들어진 집단적 의사소통의 자료라고 그 의미를 한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인쇄 매체로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의 기사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드라마 대본, 라디오 대본 등의 각종 대본, 인쇄물로 인쇄된 다양한 광고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중 특히 신문은 인쇄 매체 중 가장 중요한 교육의 대상이 된다. 신문을 활용한 학습은 그 신문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실제 기사 쓰기의 활동까지 연계되어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문을 활용한 교육은 NIE(Newspaper in education)이라 한다. 이 중에서 NIE의 주요 내용을 국어 교육차원에서 세분화하였다. 최지현(1998)에서 광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6>과 같다.

<표6> NIE 주요내용¹²⁾

1.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 기사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기 · 기사 내용을 정확히 간결하게 요약하기 · 기사 내용의 객관성, 공정성을 판단하기
----------------	--

11)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교과서 역시 인쇄 매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교과서를 제외한 인쇄매체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교과서를 인쇄 매체의 범위에 넣어 분석할 경우, 그 분석 내용의 범주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과서 속에는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의 활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는 모든 매체의 상위 범주이다. 따라서 교과서를 상위범주라 두고 그 아래에 포함되어있는 인쇄 매체, 영상매체, 인터넷 매체를 보다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교과서는 인쇄매체의 범위보다 상위 범주로 인식함을 언급한다.

12) 최지현(1998:42)에서는 신문을 활용한 교육, 즉 NIE(Newspaper in education)의 주요 내용을 국어 교육차원에서 세분화한 연구가 있음을 살펴보고 있다.

	· 기사 내용의 적절한 제목을 달기 · 기사 내용으로부터 상황이나 사건을 상상하여 이야기하기 · 기사 내용에서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 사실을 읽고 주장의 근거 찾기 · 사실을 읽고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기 · 기사를 읽고 연관된 기사를 찾기 · 기사를 읽고 같은 사건이나 내용을 다룬 다른 기사와 비교하기
2. 제목 및 표제어를 중심으로	· 제목 및 표제어를 빠르게 읽고 전체 내용을 정리하기 · 제목 및 표제어를 읽고 기사 내용을 추론하기 · 제목 및 표제어에 담긴 의견이나 태도를 추출하기
3. 광고를 중심으로	· 신문에 실린 광고와 다른 매체에 실린 광고를 비교하기 · 공익 광고와 상업 광고 비교하기 · 상품 광고와 이미지 광고 비교하기 · 광고 내용이나 표현에 담긴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 광고를 읽고 공정한 광고로 고쳐 쓰기
4. 만화를 중심으로	· 만화를 읽고 내용을 설명하기 · 만화의 내용을 글로 구체화하기 · 만화에서 다룬 내용을 기사에서 찾아 비교하기 · 만화에 표현된 것과 숨겨진 것을 구분하기
5. 편집을 중심으로	· 신문의 각 면에 실린 기사들의 성격을 비교하기 · 기사의 크기와 기사 내용의 비중을 비교하기 · 기사 내용에 따라 편집을 달리하여 신문 만들기 · 기사에 곁들인 그림이나 사진의 기능을 이해하기
6. 매체를 중심으로	· 여러 신문의 기사에서 내용이나 표현상의 차이를 구분하기 · 여러 신문의 기사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 신문 기사와 방송 보도의 비슷한 점, 차이점 구분하기

	· 신문 기사와 설명문, 보고문, 기행문, 논설문 등을 비교하기 · 신문과 책 비교하기 · 독자마다 주로 읽는 기사나 신문이 다른 까닭을 설명하기 · 신문의 용도를 추적하기
--	---

이와 같이 인쇄 매체 중에서도 신문은 매스미디어라는 속성상 여러 정보를 담고 있다. 신문을 표현이나 속성의 차이에 따라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해준다. 다시 말해 인쇄 미디어를 대표하는 신문의 경우 표현이나 속성의 차이에 따라 기사, 칼럼, 기획물, 광고, 시사만화 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사고나 정치, 경제적 문제를 찾아보고 거기에 속하는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 속에 포함된 여러 가지 표현을 찾아내고 그 속의 헤드라인이나 만화, 사진 등 신문이 갖추고 있는 속성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다. 신문의 헤드라인을 이용한 미국의 신문 교육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헤드라인 문장만으로 기사 전체의 내용을 생각해보고 생략된 문장을 만들어 보는 등의 활동을 기대한다. 또한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지역의 신문을 이해하면서 그 신문이 가진 언어적 특징 외에도 지역별 혹은 나라별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는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텍스트 분석에 관한 이해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인쇄 미디어는 비단 신문 뿐 아니라 신문, 광고, 만화 등 인쇄라는 과정을 거쳐 나온 모든 자료를 일컫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하고 그 결과로서 문식성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3.1.2 영상 매체

영상 매체라 하면 주로 텔레비전이나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의 등장과 함께 부상하기 시작한 문식성 개념이다. 이러한 영상 매체는 공중과 방송 뿐 아니라 케이블 방송이나 유선방송, 교내방송, 사내 방송 등도 포함 한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단 시청을 위한 텔레비전 프로그램뿐 라디오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디어 중 하나의 미디어를 선택해서 이를 국어교육과 접목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상 매체가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지 이해하는 것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박인기외(2000:404-405)는 방송 매체와 언어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 영상 매체를 장르별로 나누었다. 그러나 여기서 나눈 장르는 그 기준의 중복으로 인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여 국어교육과 관련시켜 살펴볼 영상 매체는 학습자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언어로 표현되는 뉴스, 여러 형태의 언어와 극적 구성을 알게 하는 드라마,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닌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토의와 토론, 과장이나 생략을 통해 시청자로 하여금 비판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광고 등이 있다. 쉽게 말해 앞서 살펴본 인쇄 매체나 시각적 영상, 청각적 영상을 더하면 영상매체로 탄생하게 된다. 인쇄 매체에 비해 영상 매체는 학습자들에게 보거나 듣는 즐거움을 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뉴스, 드라마, 토의와 토론, 광고 등이 국어교육에 어떠한 형태로 제시되어 학습 활동에 관여하는 지 살펴보겠다.

우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뉴스는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에게 유익한 교육 자료가 된다. 뉴스는 텔

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데 라디오의 경우 음성만을 사용하지만 텔레비전 뉴스의 경우 음성과 영상이 함께 방송된다는 점에서 다중적인 미디어라 볼 수 있다. 이 때 라디오 뉴스는 오로지 음성만으로 모든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지만 학습자의 주의 집중이 흐트러질 경우 그 내용을 놓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런 역기능의 관점에서 텔레비전의 경우 라디오의 역기능을 보완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보다 쉽고 편하게 뉴스를 접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뉴스를 통해 학습자는 뉴스 활용 학습으로 학습을 그치지 않고 직접 뉴스 기사를 읽어본다든지, 직접 기사문을 써보는 활동 등으로 확장시켜 다양한 학습 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활동과 타인의 학습 활동을 비교하여 타인의 의견을 올바르게 수용하는 태도는 물론이고 옳지 않은 의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기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극적인 장치를 통해 재미와 흥미를 주는 드라마에 대해 살펴보자. 드라마는 쉽게 말해 있음직한 일을 꾸며낸 허구적 이야기인 소설의 변화한 모습이다.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극이 전개되고 보다 극적이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드라마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 다양한 매체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보다 쉽고 대중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또한 드라마는 그 배경에 따라 일상적인 언어가 그대로 반영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보다 광범위한 언어적 경험을 하게 해준다. 드라마는 대본을 기본으로 하여 연상 장치에 의해 구현되는 영상 매체이다. 따라서 학습자들 드라마의 대본을 이용해 지시문과 대사의 연결에 관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고 직접 연기를 해보는 활동 학습까지 가능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실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는 등의 영상 제작 교육까지 가능하게 한

다는 점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로 영상매체를 활용한 후 교실 상황 내에서 적용하기 가장 용이한 토의·토론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는 영상매체를 통해 토의·토론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토의·토론을 보면서 학습자는 자신이 직접 참가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알게 됨으로 사고의 폭을 넓혀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토의·토론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되는 규칙과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 등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토의·토론이 중요시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교실 내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소개된 인쇄 매체를 살펴보고 거기에 문제시 되는 여러 가지 상황 등에 대해 조별 혹은 개인별로 토의·토론을 진행한다면 토의·토론 방송을 통해 습득하게 된 다양한 규칙과 설득의 방법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토의·토론을 진행하는 배경, 다시 말해 학습자들이 인터넷 상황 실제로 토의·토론을 진행하거나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이 토의·토론을 진행하는 장면을 보고 이를 비판하는 활동을 진행 하는 등의 활동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이점을 지니기도 한다.

광고는 학습자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된다. 광고는 앞서 살펴본 인쇄매체에도 등장했던 매체로써 인쇄와 영상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광고가 영상 매체를 통해 전해질 때는 인쇄 매체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음향적인 요소와 현란한 이미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간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영상을 통한 광고는 인쇄 매체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때보다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더욱 증진 시킨다. 광고의 학습효과는 인쇄 매체로 학습자들에게 노출될 때보다 영상 매체로 학습자들에게 노출되었을 때 이를 사용하는 학습자의 흥미가 보다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뿐

아니라 광고를 통해 전달되는 전달력이나 파급 효과 등을 학습한 학습자는 보다 더 나은 전달방법을 알게 될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광고의 제작까지 가능하게 하며 광고를 하나의 설득적인 글로 이해한다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까지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영상 매체는 종전의 인쇄 매체에 비해 학습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것이 국어교육과 관련한 교육적 측면으로 본다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부분에서 능동적인 참여를 장려한다. 인쇄 매체는 이러한 영상 매체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영상 매체로 인해 갖게 된 학습자들의 흥미를 이용하여 이와 관련 된 결과물을 인쇄 매체로 제작하게 하는 활동까지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각각의 미디어가 가진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학습자의 직접적인 제작 또는 참여까지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보다 능동적인 매체라 할 수 있다.

3.1.3 인터넷 매체

종래의 인쇄 매체와 영상 매체는 교육을 위한 도구로써 인식되어왔다. 물론 영상 매체는 인쇄 매체에 비해 학습자를 보다 능동적인 참여자로 이끌었지만 늘 한계가 존재했다. 그러나 정보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교육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 생겨났다. 여기에는 인터넷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다. 통신과 디지털의 결합은 지금까지 대화의 통로에 머물렀던 단계에서 종합 커뮤니케이션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으로 시청각의 멀티미디어의 세계가 단일화 창속에서 구현됨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

매체(Internet media) 이다.

매체의 등장 시기와 학습자들의 요구에 발맞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매체가 등장했으며 그에 따라 이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처음 인쇄 매체가 등장했을 때 보다 적극적인 이해를 위해 문자 이해를 요구한 것과 같이 영상 매체의 등장에서는 다양한 영상 언어를 분석하기 위한 능력이 요구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매체가 등장했을 때 역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터넷 매체를 도구적 컴퓨터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는 디지털 언어를 이해하고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 능력을 요구한다. 먼저, 인터넷 매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어찌 보면 기술적인 측면으로의 접근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에 접근하게 되면 수용자는 이를 보다 논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다. 인쇄 매체, 영상 매체 그리고 인터넷 매체까지 경험하게 된 학습자는 보다 빠르고 쉽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양적으로 만족할 만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과잉정보들의 변별력이 문제이다. 학습자들은 양적으로 넘쳐나는 이러한 정보들을 자신에게 필요한 그리고 사실인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요구된다. 인터넷 매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본격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인터넷 매체를 인식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발견하여 그것을 획득한 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사용 환경이나 그 프로그램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러한 인터넷 매체를 단순히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인터넷 매체를 그 자체, 문식성 능력 육성을 위한 학습 자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의 궁극적 목적은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여 그 속의 언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럼 이러한 각각의 미디어가 가진 성격을 바탕으로 7, 8학년의 국어교과서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요구하는 지 다음 장에서 연구해 보겠다.

3.2. 국어교과서 제제별 미디어 문식성 교육 방법

7, 8학년의 국어교과서에는 여러 가지 미디어가 등장한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보다 능동적인 학습 내용의 이해는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각 성취 기준과 내용요소를 기준으로 각 학년에서 요구되어지는 학습활동은 무엇이며 어떠한 미디어의 활용으로 학습자들의 문식성 능력을 육성하려는 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2.1. 7학년 국어교과서의 미디어 문식성

<표7>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7학년)

【듣기】	【말하기】
[듣기(1)] 수업을 듣고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내용을 메모한다.	[말하기(1)] 대화 상대의 특성을 살려 주변의 인물이나 관심사를 인상 깊

[내용 요소의 예] ·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듣기의 특성 이해하기 · 예고, 강조, 요약, 등에 사용되는 담화 표지 알기 ·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 파악하기 · 교과별로 수업의 중요한 내용 정리하기	게 소개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소개할 대상의 특성에 맞게 내용 조직하기 · 대상을 인상 깊게 기억할 수 있는 표현 활용하기 · 자신의 관심 대상을 다른 사람과 능동적으로 공유하기
[듣기(2)] 광고를 보거나 듣고 설득의 전략을 파악한다. [내용 요소 표현의 예] · 광고의 특성을 이해하기 · 언어 표현이나 이미지 구성 방식 파악하기 · 아이디어 생성 과정 및 기획의도 추론하기 · 광고의 신뢰성과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	[말하기(2)] 대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호소력 있게 말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상대의 처지 이해하기 ·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 생성하기 · 상대와 상황에 알맞은 표현과 어조로 말하기 · 정서적 공감과 인격적 감화의 중요성 이해하기
[듣기(3)] 주변 인물과 면담을 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면담의 목적과 의도 이해하기 · 면담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담하기 · 면담 결과를 목적에 따라 정리하고 분석하기	[말하기(3)] 인터넷 게시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토론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인터넷 매체의 상호작용적 특성 이해하기 · 게시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 논제에 따른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 언어 예절, 인권 초상권 등을 고려하기
[듣기(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말하기(4)] 말의 내용이나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며 대화를 나눈

[내용 요소의 예] ·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	다. [내용 요소의 예] · 관계 중심 대화와 정보 중심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 상대를 고려하여 화제 선정하기 · 상대에 따라 말하기 전략을 달리하기
---	--

위의 성취 기준에서도 알 수 있듯이 7학년 듣기·말하기 성취기준에서는 광고, 면담, 인터넷의 미디어를 활용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은 그 자체의 특성을 알아가는 학습에서 탈피하여 그 미디어를 활용한 인접 학습활동, 다시 말해 광고라는 미디어를 이용한다면 광고의 특성을 살펴보는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고 속의 언어 표현, 그리고 제시된 다양한 그림이나 사진의 특성을 살펴보는 활동까지 포함한다. 또한 광고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과대광고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광고의 신뢰성까지 판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하여 거기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까지 고려하게 하여 인터넷 상의 예절까지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그럼 각 미디어 별 특징을 살펴보고 상위 교과서에서는 이들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지 살펴보자.

1) 광고

광고는 우리 사회에서 관습화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중시한다거나 그 장르적 제약이 없다는 것 등의 내적 자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광고하는 모델의 인지도가 기업과 자본의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함께 매체 특성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특징도 지닌다. 그 외에도 새로운 유

행 창조에 앞장선다는 것 등 내적 자질과 함께 외적 자질에서도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광고를 국어과 교육에 수용할 때는 그것이 학생들에게 친숙한 미디어라는 장점과 함께 그것 속에 숨어있는 역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광고와 국어교육을 관련하였을 때 단순한 비주얼적 측면 보다는 언어적 측면이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정연신(2004)도 이러한 광고의 역기능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과서에서 광고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미디어 문식성 교육을 실시할 때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국어교육의 자료로 광고를 사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동기 유발이나 흥미 부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 한 가지에 주력하여 광고를 활용한 학습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우선, 처음부터 이를 지나치게 세밀화 한다거나 비판적인 사고로 바라보게 한다면 학습자는 본래의 취지였던 흥미 유발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러한 역기능에 의해 단순한 광고로만 보게 한다면 광고를 이용한 학습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라는 교량이 존재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지나치게 비판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광고를 받아들여 학습하게 될 경우 교사가 먼저 능동적인 읽기를 시범보임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사고력이 증진된다. 여러 형태의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화 시대에 광고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점이지만 광고는 국어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한 것이지 광고를 위해 국어 교육을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 학습자의 학습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인터넷

‘우리가 쓰는 글쓰기 도구가 우리 사고에 함께 가담한다.’ 고 철학자 프리

드리히 니체가 페터 가스트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확인된 바¹³⁾와 같이 우리의 글쓰기 방식은 우리의 사고와 인식 구조에 따라 변한다. 인쇄 미디어에서 영상 미디어 그리고 오늘날의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은 그것을 증명해주는 커다란 예시이다. 인쇄된 신문을 읽던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 읽기 시작했고 종이에 글자를 적어 편지를 쓰던 이들은 전자우편이라는 방법으로 편지를 쓴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삶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교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도구적인 컴퓨터의 등장과는 차이를 보인다. 컴퓨터 문식성은 전통적 문식성에 부차적으로 첨부되어 내용을 보기보다 기능 위주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개인이 컴퓨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컴퓨터의 기능을 얼마나 잘 운용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수단적·기능적으로 미디어를 보지 않으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다양한 정보는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어교육과 인터넷 미디어를 결부시켰을 때 이를 사용하는 학습자를 그 대상으로 한 학습 목표는 인터넷 미디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함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지닌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한 결과 기존의 학습 방법이 보다 활동 중심의 학습으로 변화되었으며 인쇄 미디어나 영상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져서 기존의 면(面)대 면(面)으로만 가능했던 토의·토론과 같은 활동도 인터넷

13) 강민지(2007:1 재인용) 책의 인터페이스와 글쓰기 공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21 사업단 주최 제3회 대학원생 논문발표회.

게시판이나 인터넷 상의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3.2.2. 8학년 국어교과서의 미디어 문식성

8학년 국어교과서는 7학년의 국어교과서의 성취기준보다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활용되는 미디어의 종류는 7학년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미디어를 활용한 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7학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럼 먼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자.

<표 8>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8학년)

【듣기】	【말하기】
[듣기(1)] 강연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을 질문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강연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 메모하기 · 내용을 정리하여 조리 있게 질문하기	[말하기(1)] 공식적인 상황에서 매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발표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발표할 내용을 시각적 정보와 글 정보로 구분하기 · 발표 상황과 주제에 적합한 정보와 자료 제시하기 · 청중의 흥미와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발표하기
[듣기(2)] 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협력적으로 반응한다. [내용 요소 표현의 예] · 회의 용어와 진행 규칙 알기 · 의견의 요점을 파악하기 · 의견의 장단점을 평가하기 ·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말하기(2)] 친구들 앞에서 학급 문제에 대한 의견을 호소력 있게 말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청중의 관심 분석하기 · 학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탐색하기

가지기	· 청중이 공감하는 근거 제시하기 ·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기
[듣기(3)] 수업 대화를 듣고 수업 참여자 간 의사소통의 특성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수업 대화의 상호 작용적 특성 이해하기 ·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의 양상 파악하기 · 상호 작용의 양상에 따른 학습 효과 판단하기	[말하기(3)] 말의 내용이나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웃어른과 대화를 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세대에 따른 말하기 방식 차이 이해하기 · 서로 다른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대화 화제 찾기 · 웃어른을 존중하는 말 문화 이해하기
[듣기(4)]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진행자의 말하기 특성과 효과를 평가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라디오 프로그램의 특성 이해하기 · 진행자의 말하기 전략 분석하기 · 진행자의 반언어적 표현 효과 평가하기 · 다른 매체 프로그램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과 비교하기	[말하기(4)] 드라마의 인물이 되어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인물에 어울리는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찾기 · 드라마의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심리 이해하기 · 인물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사용하기

1) 라디오

라디오는 목소리로 진행되는 방송으로 청각활동 외 부수적인 상황은 학습자들의 상상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그만큼 라디오를 이용하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라디오에 절대적 집중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듣기 실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다시 말해 라디오는 음성만을 사용하는 단일 미디어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학습자들로 하여금 집중력을 요구한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학습자가 순간적으로 집중

력이 흐려졌을 경우 중요 내용을 놓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역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라디오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옳다. 정리해보면 라디오라는 미디어를 통해 학습자들이 접하게 되는 뉴스, 광고, 토의·토론 등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유일하게 청각만을 의존하여 학습하게 되므로 시청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텔레비전을 통한 학습과는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디오 드라마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라디오 드라마에서는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살아있는 소리를 낸다. 예를 들어 청취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여자의 구두소리, 문 닫는 소리, 말이 평야를 달리는 소리 등을 만들어 낸다. 구두 소리나 문 닫는 소리는 드라마가 녹음되는 스튜디오 안에서 낼 수 있는 가능한 소리지만 달리는 말의 경우 실제 말을 달리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라디오를 듣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말소리를 내는 요소를 짐작해보게 하는 흥미로운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시·청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때와는 또 다른 성격의 흥미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청각으로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상하게 되면서 호기심이 유발될 수 있다.

2) 토의·토론

토의·토론은 영상 미디어와 인터넷 미디어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실현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먼저 영상 미디어를 통한 토의·토론을 살펴보자. 영상 미디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몇 명의 전문가가 토의·토론을 벌이면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사 토의·토론 프로나 어떠한 문제에 대해 비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의 프로그램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의·토론에는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장과 반론이 존재하고 그 반론에 대한 또 다른 의견 혹은 정리 등의 일정한 규칙 속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토의·토론의 형식을 통해 학습자는 토의·토론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특징, 규칙, 설득의 전략 등을 학습하게 되며 보다 적극적인 말하기·듣기를 위한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을 인식하게 되면서 토의·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요구되는 토의·토론의 기술을 적절하게 구사하지 못했을 때 이를 적절하게 비판하는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토의·토론은 영상 미디어 뿐 아니라 인터넷 미디어 상에서도 이루어진다. 주로 토의·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한 공간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발언권을 얻고 논제를 이어나가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토의·토론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인 토의·토론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이로 인해 인터넷 미디어의 일반적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진행되는 토의·토론은 시간, 공간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여러 성격을 지닌 사람들의 개성적인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보다 넓고 깊은 지식의 층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미디어 상의 토의·토론은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인터넷 미디어 상에서 이루어지는 토의·토론은 실제 면(面)대 면(面) 토론·토의에 비해 두 의견 사이를 정리해주는 사회자 혹은 진행자의 역할이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두 의견이 대립을 하게 될 경우 그들 사이의 사회자는 대립이 과열양상을 보이기 전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방법으로 두 의견을 정리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토의·토론일 경우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이 깨질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

서 토의·토론에 참가하게 될 경우 이러한 점을 잘 인지하여 토의·토론이 처음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이 유의해야 한다.

토의·토론의 기본적인 이해가 이루어지고 나면 실제 교실 상황 내에서 토의·토론이 이루어진다. 교사가 준비한 다양한 토의·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적인 규칙과 방법을 이해한 학습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경험한 토의·토론 프로그램의 주제를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것도 좋은 학습 전략이 될 것이다. 이미 한 번 경험한 주제이기 때문에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깊이 있는 토의·토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토의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교실 장면에서 실제로 토의·토론이 진행 될 경우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승패결과가 아니라 토의·토론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간의 예절 등을 얼마나 습득했느냐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드라마

드라마는 영상 미디어 범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미디어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흥미를 유발하게 하여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는 큰 이점을 지니고 있다. 드라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다 실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언어를 습득하게 하며 또한 그 속의 삶의 모습 역시 실제의 삶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자들이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러 가지 방송 미디어 중에서 교육과정 내에서 활용 범위가 가장 넓은 미디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높은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청각을 모두 활용한 학습을 유도하는 드라마라는 미디어는

이를 활용할 때 드라마에 사용된 제재의 적합성이나 표현의 정확성을 판단해주는 조연자가 있어야 한다. 8학년 학습자의 경우 아직 표현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또래 집단의 언어나 생활 모습을 모방하는 것이 익숙한 나이이기 때문에 이들의 판단에 대해 조언해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드라마의 학습은 단순히 시청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학습이 아니다. 읽기와 연관 지어 살펴보면 실제 드라마 대본의 읽기를 통해 지시문의 역할과 실제 대사의 역할, 설명의 역할을 알 수 있게 된다. 드라마를 통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나면 실제 드라마를 써보는 등의 쓰기활동까지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학습활동 역시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7, 8학년의 성취기준을 통해 교과서에서 언급될 다양한 미디어 문식성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7, 8학년의 교과서에 제시된 다양한 미디어는 그것들이 가진 실제 성격보다 교실상황이나 학습자들의 배경지식 등의 한계로 인해 다소 편협하게 진행 될 수밖에 없으며 그 미디어의 종류도 범위가 좁은 편이다. 하지만 학습자들에게 보다 여러 유형의 학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것들로 하여금 문식성 능력을 넓혀나가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문식성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그 미디어가 가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미디어 자체가 가진 성격 파악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접학문과의 연관 학습을 통해 보다 다양한 경험 학습을 진행 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거시적 범위에서 인쇄 미디어, 방송 미디어 그리고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 문식성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각 학년의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비교해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의 내용과 그 역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7, 8학년 교과서에서 이러한 미디어들이 그 성취기준에 맞게 학습되고 있는지 학습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학습 지도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4. 미디어를 이용한 말하기·듣기 교육의 실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형태의 미디어를 사용하여 학습자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이러한 노력이 학습 목표에 반영되어 있는 지 본격적으로 7, 8 학년에 제시된 미디어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우선,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던 매체라는 개념이 단순한 매체 즉, 도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다. 이에 학습자들이 실제 수업 상황 속에서 흥미를 느끼고 그에 따른 학습 효과가 증대되는 것을 기대하여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기석(2002)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국어사용 기능의 교수 학습은 학습자들에게 통합적인 시각으로 다가가게 되므로 학습자들의 호기심과 창조성 유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존의 단순한 도구로서의 멀티미디어가 가진 단순한 시·청각적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읽고 쓰는 활동을 병행함에 따라 학습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과 배경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보다 다양한 경험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학습자들에게 보다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해주는 미디어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부터는 실제 교실 상황을 가정하여 미디어의 종류를 정하고 이에 맞는 교과서를 분석하여 학습지도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미디어를 선정

하는 기준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디어와 학습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학습자가 진행과 참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미디어,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광고라는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광고란 것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하는 일종의 목적 미디어다. 광고에서 전달하고자하는 의미를 수신자는 자신의 배경지식, 경험, 여러 형태의 자극들을 바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알아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고 속에 등장하는 언어나 그림 등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보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목적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을 국어교육과 연관시켜보면, 학습자들은 이러한 광고의 역기능을 추리하여 주어진 텍스트나 학습내용을 보다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에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어 학습의 가장 큰 수행활동으로 지목되는 ‘자기 수행 활동’에 있어 광고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 내용이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어 결과적으로 높은 학습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광고란 미디어는 인쇄 미디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영상 미디어 그리고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미디어이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교실 상황에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접할 수 있는 친숙한 미디어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광고는 학습자가 혼자 길을 가다가도 벽에 붙어 있는 인쇄된 광고지를 통해 광고를 접할 수 있게 되고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도중에도 광고를 접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다가도 팝업창 등으로 인해 광고를 접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광고는 그 어느 미디어보다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미디어라 할 수 있다. 또한 광고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으로 인하여 인접 학문의 학습까지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은화(2002)는 광고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미적

언어를 통해 학생들은 언어에 대한 감식력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언어의 상징적 사용에 도움을 준다고 보았으며 광고에서 사용되는 수사법을 이해하고 이러한 수사법을 활용하여 쓰기 교육과의 연계가 용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박원경(2009)은 광고 텍스트를 언어, 기호적 특성과, 표현적 특성,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루 갖춘 복합적 구조물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광고 텍스트를 통하여 의사소통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체가 지닌 소통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해를 통하여 학습자는 광고 텍스트에 내포된 사회, 문화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자가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2012년 현재 7, 8학년에서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는 2007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국어과의 성격을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 활동의 범위의 설명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어의 내용이지만 이 속에는 기능적 문식성의 신장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위해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을 확대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활용되는 미디어는 학습자들에게 미디어가 가진 여러 형태의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을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접근성이 용이함과 동시에 7학년 학습자들로 하여금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학습을 제시할 수 있는 광고가 가장 적합한 미디어로 판단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광고 미디어의 효용성을 근거로 하여 앞서 살펴본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들 중 광고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실제 수업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교과서 선정 기준에 따른 7, 8학년 상위 3권에 속하는 교과서들 중 광고 미디어를 활용한 7학년 1학기 방인호외(2011) 지학사 국어 교과서 4단원 매체 언어와 광고와 7학년 2학기 이승원외(2011) 좋은책 신사고 3단원 매체와 언어생활에 제시되어 있으며 8학년 교과서로는 조동길외(2011) 2학기 비상교육 4단원 일상에서 만난 모호함에 제시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광고란 미디어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제시하거나 집중적인 미디어로 보지 않더라도 교과서 선정 상위 3권의 출판사 모두 광고란 미디어를 그 소재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모두 같은 관점으로 광고란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민아(2007)는 교육의 목표는 시대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며 지금의 정보화 사회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올바르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와 그에 따른 비판성, 창조성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올바른 판단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판단 능력이라는 것은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많은 정보를 학습자 스스로 검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광고나 이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를 있는 그대로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학습자들이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광고란 미디어를 사용하여 문식성 능력을 기를 경우 그에 따른 개념의 정의를 이해하는 학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담고 있는 각종 미디어들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동시에 광고 미디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능함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광고 미디어 그 자체의 의미만을 한정하여 학습하거나 광고를 그대로 수용하여 그 정보를 이용한 학습을 유도하는 타 교과서에 비해

방인호외(2011) 지학사 국어 교과서 7학년 1학기 4. 매체 언어와 광고 단원에서는 보다 광고란 미디어의 활용도를 넓게 잡고 학습자에게 광고의 기본적인 개념은 물론 그를 받아들이는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7학년에서 분석할 교과서 제재는 지학사(방)의 단원을 활용함을 밝힌다.

그럼 지금부터 방인호외(2011) 지학사 국어 교과서 4. 매체 언어와 광고 단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단원에서는 우선 소단원 (1)언어와 매체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기본적인 상황을 이해한 후 미디어의 광의의 개념인 인쇄 미디어, 영상 미디어, 인터넷 미디어와 학습자가 친숙할 수 있는 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소단원 (2)광고의 이해 단원의 학습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광고의 개념과 유형을 학습하게 한다. 그 후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하기 위해 인쇄 광고와 라디오 광고 그리고 텔레비전 광고를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보다 거시적인 개념으로 광고를 살펴보게 하고 있으며 보다 올바르게 광고를 파악하기 위해선 광고를 ‘읽는다.’고 표현하여 광고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림이나 영상으로 보여 지는 광고를 읽기와 접목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을 용어 그대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본 단원의 교수·학습 계획을 통해 간략하게 학습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자. 보다 객관적인 학습지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습지도안은 방인호외(2011) 지학사 국어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되어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삼도록 하겠다.

14)

<지도안 1> 지학사(방) 국어 교과서 4단원 매체 언어와 광고

구분	교수·학습 내용	학습자료	차시
----	----------	------	----

14) 방민호 외(2010:254), 「국어교과서 1-1 교사용 지도서」, (주)지학사.

단원의 길잡이		·대단원 학습 목표 알기 ·‘단원의 길잡이’를 읽고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 예상하기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사용된 매체 와 광고	1
(1)언어와 매체	읽기 전 활동 - 생각 열기	·만화를 보고 음성 언어 와 문자 언어의 특성 생 각해보기		2
	읽기 중 활동	·사람의 언어생활과 음 성 언어, 문자 언어의 특징 및 매체를 활용한 언어생활의 다양한 모습 파악하기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사용된 다양 한 매체	
	읽기 후 활동 - 학습활동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의 특성 이해하기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가 사용된 예를 생활 속 에서 파악하기 ·신문과 인터넷, 휴대 전 화 등 각 매체에 사용되 는 문자 언어의 특성 비 교하기		3
(2)광고의 이해	읽기 전 활동 - 생각 열기	·광고의 의미 파악하고 느낀 점 말해보기		4
	읽기 중 활동	·광고의 정의 이해하기 ·광고의 목적과 표현 방 법 파악하기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 용하기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인쇄 광고, 라 디오 광고, 텔 레비전 광고	
	읽기 후 활동 - 학습활동	·광고의 정의 파악하기 ·매체에 따라 달라지는 광고의 표현방법 이해하 기 ·광고의 신뢰성과 타당 성 평가하기	과 장 광 고 의 다양한 예	5~6

단원의 마무리	·학습 내용 스스로 점검하기 ·학습 용어 정리 및 과제 해결하기 ·학습 내용 정리하기		
---------	---	--	--

위의 교수·학습 계획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광고란 미디어를 이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광고 속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를 알게끔 유도하기 위해 먼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에 관한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 광고라는 미디어를 통해 얻고자 한 바는 무엇인가에 관해 이 단원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같은 주제이지만 미디어의 종류가 다를 경우 어떻게 표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여 그 방법을 알게 함은 물론이고 광고라는 미디어로만 한정되어 살펴볼 때 동일한 내용의 광고 중 옥외 광고, 인쇄 광고, 영상 광고, 인터넷 광고의 특징을 살펴보는 학습까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즉 다양한 성격의 광고를 이해함에 따라 각 미디어가 지닌 성격을 알 수 있게 한다. 위와 같은 학습을 통해 미디어 문식성을 기르기 위한 학습의 출발을 꾀한다. 물론 이론적인 학습에 앞서 실제적인 미디어와 학습자가 만나는 것도 활동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학습자의 거부감을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은 7, 8학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음에 있어서 미디어들이 왜 자신들의 학습에 전반적으로 걸쳐져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품는 학습자는 소수일 것이며 미디어들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기능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습의 시작은 미디어의 기본적인 출발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미디어의 범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자언어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인쇄 미디어와 음성 언어로 실현될 수 있는 영상 미디어 등과 친숙해지기 위한 단계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미디어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기본적인 활동 이후 미디어의 종합체라 볼 수 있는 광고를 통해 실제로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스스로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학습이 진행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순차적인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습자는 쉽게 접하게 되는 광고의 특성을 파악함은 물론 거기에 동반되는 다양한 광고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기본으로 비판하는 안목까지 기를 수 있게 된다.

다음 살펴볼 미디어는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이다. 인터넷은 처음 컴퓨터라는 보조적 매체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하지만 미디어를 도구로써 바라보는 인식이 사라지고 중요한 하나의 학습 내용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양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실시간 토론학습과 협력 활동 등 다양한 장점이 부각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학교 등 여러 형태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탐색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얻을 수 없는 많은 정보를 인터넷으로 얻고자 하고 이를 활용한 정보의 검색은 인터넷 사용의 빈도에 따라 그 능력이 향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은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또는 다양한 미디어적 경험이나 배경지식이 풍부한 학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다소 광범위해보일 수 있는 인터넷 미디어는 학습자들에게 쉽게 노출이 될 수 있고 그 노출빈도만큼 친숙한 미디어이기 때문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습에 흥미를 충분히 이끌 수 있는 미디어이다. 물론 지나치게 흥미위주의 미디어 제시로 인해 학습자이 경험해야 할 본연의 학습 목표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다양한 요소를 지닌 인터넷 미디어에 있어 학습자들이 타인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과 비교해보고 또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터넷 토론이라는 작은 소단원을 설정해 보고자한다.

학습자는 인터넷 토론이라는 미디어를 통하여 인터넷 미디어의 특징을 습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토론이라는 학습방식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으며 제시된 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단원의 선정 기준은 앞서 살펴본 광고라는 미디어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같은 교과서인 방민호외(2011) 지학사 국어 교과서 7학년 1학기 교과서로 선정하였으며 학습지도안 역시 동일 교과의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을 기초함을 밝힌다.¹⁵⁾

<지도안 2> 지학사(방) 국어 교과서 6단원 우리가 바라는 세상

구분	교수·학습 내용	학습자료	차시
(3)로봇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 줄까	읽기 전 활동 - 생각 열기	·로봇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토론 주제와 관련한 자료 공유하기	8
	읽기 중 활동	·인터넷 토론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독해하기	
	읽기 후 활동 - 학습활동	·토론자들의 의견과 근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언어 예절, 인권, 초상권 등을 고려하기	9

15) 방민호 외(2010:400), 「국어교과서 1-1 교사용 지도서」, (주)지학사.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모듈별로 토론하기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토론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언어 예절, 인권, 초상권 등을 고려하기		10
--	--	--	--	----

이와 같이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교과 내용이 동일 교과서인 방민호외(2011) 지학사 국어 교과서 2학년 2학기 3. 표현과 매체에도 언급되고 있다. 동일 교과서의 다른 학년에서 인터넷 매체에 관련한 내용은 어떻게 다루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제 교실 상황에서는 어떠한 학습을 기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8학년의 인터넷 미디어 활용 수업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학습 지도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6)

<지도안 3> 지학사(방) 국어 교과서 3단원 표현과 매체

구분		교수·학습 내용	학습자료	차시
(3)블로그에 담은 우리 꽃 봉선화	읽기 전 활동 - 생각 열기	·‘봉선화’를 읽고 말하는 이가 봉선화를 누님으로 인식한 이유 말해보기	시 낭송 파일	9~10
	읽기 중 활동	·블로그의 특성 이해하기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 파악하기	봉선화 관련 매체 자료	
	읽기 후	·봉선화에 대한 다양한		11

16) 방민호 외(2010:190), 「국어교과서 2-2 교사용 지도서」, (주)지학사.

	활동 - 학습활동	정보 확인하기 ·블로그에 달린 댓글의 특징과 문제점 파악하기 ·분자 메시지, 전자 우편 의 매체 특성에 따라 글 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 지는 것을 파악하기		
--	-------------------------	---	--	--

위의 교수·학습 계획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이란 미디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단순히 이러한 미디어의 특징이나 사용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미디어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준비에서부터 실제 토론에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학습자로 하여금 직접 참여하게 해봄으로써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예절이나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도 자연스럽게 경험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접해봄으로써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인터넷 활동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도적으로 토론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활동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인터넷이란 미디어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지는 인터넷 예절 문제이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 상의 폐해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하여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드러난다. 하지만 본 단원에서는 인터넷이란 미디어를 사용하여 그 속에서 자연스러운 토론활동을 진행하게 함과 동시에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언어 예절이나 인권, 초상권 등을 고려한 진행을 염두 해 두고 있다. 학습자 중심의 진행을 위해 실제 토론의 진행부터 실제 토론의 참여자, 그리고 토론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찾는 활동 모두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야 하지만 인터넷 미디어의 역기능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또래 집단들과 사용하는 인터넷 용어들의 바른 사용을 알려주거나 토론·토의가 과열되었을

경우 이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라 보여 진다. 따라서 자유롭게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문식성 능력의 육성을 위한 학습을 진행하되 교사의 적절한 개입과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된다면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토론 활동 역시 앞서 살펴본 광고라는 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 문식성 능력의 육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보인다.

앞선 언급했다시피 미디어 능력의 육성을 위한 미디어 활용 교육은 그 미디어 자체의 학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접학문과의 연계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7차 교육과정부터 1~10학년에 적용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과의 내용 체계의 순서에 따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읽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듣기·말하기의 학습이 유도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인식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 볼 때, 미디어를 활용한 듣기·말하기 학습과 읽기 영역의 연관성은 자연스러운 학습 활동으로 이해된다. 그럼 미디어를 활용한 듣기·말하기 학습에서 시작하여 읽기 학습으로까지 확대되어 있는 학습내용을 살펴보자. 이 역시 교과 내용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앞서 분석한 방인호외(2011) 지학사 국어 교과서 단원을 활용하겠다. 방인호외(2011) 지학사 국어 교과서의 7학년 1학기 5단원 아름다운 성장에서는 영화 매체를 통한 읽기 학습을 유도한다. 물론, 문학의 읽기와 영화 시나리오 읽기가 모두 제시되어 있지만 미디어를 활용한 문식성 능력을 유도하기 위한 학습으로 영화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분석해 볼 7학년 국어 교과서의 읽기 성취 기준에 대해 살펴보자. 읽기의 성취기준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그 내용 요소의 예와 함께 살펴보려 한다.

1) 읽기의 개념, 특성, 원리, 방법을 안다

이 성취 기준에 따른 내용 요소는 읽기의 개념과 특성 이해하기, 읽기의 원리 파악하기, 맥락을 고려하면서 글을 읽는 방법 파악하기와 글의 특성에 맞는 읽기 방법을 활용하여 글 읽는 태도 기르기의 요소가 있다. 이는 기본적인 읽기의 능력을 고려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이해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독자의 관점, 입장, 지식 등에 따라 글의 내용이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한다.

이 성취기준에 따른 내용 요소는 글의 다양한 이해 가능성 이해하기, 글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원인 파악하기, 자시의 이해와 다른 사람의 이해 비교하기,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이해한 바를 존중하는 태도 기르기가 있다. 이러한 내용 요소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목을 기르게 하기 위함으로 이해된다.

3) 건의하는 글을 읽고 주장의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 성취기준에 따른 내용 요소는 건의하는 글의 목적과 특성 이해하기, 문제 상황과 요구 상황 파악하기, 그리고 주장의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 판단하기, 합리적인 문제 해결방안 찾는 태도 기르기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학습자는 상대방의 문제가 무엇인지 건의하는 사항에 집중할 수 있으며 올바른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어떠한 문제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줄 수 있다.

4)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이 성취기준에 따른 내용 요소는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의 특성 이해하기, 가치 있고 감동적인 경험에 공유하기와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가 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가치관과 윤리 비교하기가 있다. 이러한 내용 요소를 학습하게 되는 학습자는 독서라는 학습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성찰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속에서 어떠한 가치관과 윤리가 존재하게 되는 지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5)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이 성취기준에 따른 내용 요소는 영화의 매체 특성 이해하기와 영화의 서사 구조 평가하기 그리고 주요 인물의 성격 및 인물 형상화 방식 파악하기가 있으며 영화에 나타난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토론하기가 있다. 이러한 학습을 행한 학습자는 실제 영화나 영화의 시나리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인물들의 성격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토론의 방식과 진행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제 토론을 진행하면서 등장인물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생각지 못한 인물의 다양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럼 실제 교수·학습 계획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성취기준에 따른 내용인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그럼, 먼저 교수·학습 계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역시 객관적인 재 분석을 위하여 방인호외(2011) 지학사 국어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학습 계획안¹⁷⁾을 제시하도록 한다.

17) 방인호 외(2010:320), 「국어교과서 1-1 교사용 지도서」, (주)지학사.

<지도안 4> 지학사(방) 국어 교과서 5단원 아름다운 성장

구분		교수·학습 내용	학습자료	차시
단원의 길잡이		·대단원 학습 목표 알기 ·‘단원의 길잡이’를 읽고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 예상하기		1
(1)하늘은 맑건만	읽기 전 활동 - 생각 열기	·만화 상황에서 나의 행 동 추측해 보기		2~4
	읽기 중 활동	·소설을 읽고 글의 내용 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기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 게 확인하기 ·인물 간의 갈등이 생기 는 원인 파악하기		
	읽기 후 활동 - 학습활동	·소설 속 인물의 성격 정리해 보기 ·소설 속 갈등 구조 파 악해 보기 ·갈등의 해결 과정에 따 라 인물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해 보기 ·결말 부분을 새롭게 써 보기		5
(2)상록수	읽기 전 활동 - 생각 열기	·영화 ‘상록수’포스터를 보고 영화의 내용 상상 해 보기	영화 포스터	6~8
	읽기 중 활동	·시나리오 ‘상록수’를 읽 고 글의 내용에 대해 간 단히 확인해 보기 ·글 속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과 인물 간의 갈등	영화 동영상 파일	

		관계 정리해 보기 ·시나리오의 매체 특성을 정리해 보기 ·글 속에 나타난 시대적 상황 파악하기 ·글 전체 내용 파악해 보기		
	읽기 후 활동 - 학습활동	·영화 장면을 사건의 흐름에 따라 나누어 보기 ·소설과 시나리오에서 인물의 형상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기 ·영화 속에 드러난 갈등과 그 해결 방법 파악해 보기		5~6
	단원의 마무리	·학습 내용 스스로 점검하기 ·학습 용어 정리 및 과제 해결하기 ·학습 내용 정리하기		

위의 교수·학습 계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인호외(2011) 지학사 국어 교과서의 5단원 아름다운 성장에서는 단순히 소설과 시나리오 읽기의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통해 그 미디어의 특성을 파악하게 한다. 즉, 지시문, 대사, 해설 등이 포함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학습자는 그 내용적 측면을 고려하는 동시에 실제 영화로 제작되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다. 또한 교과서 중간 중간에 제시되는 시대 반영 사진을 통해 그 시대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애초에 미디어 문식성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표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학습 목표에 부흥하여 단순히 문학 작품 읽기 단원이 아니라 읽기의 제재로 선택된 학습 자료를 통해 학

습자는 그 미디어가 지닌, 다시 말해 시나리오가 지닌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실제 시나리오를 통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나아가 소설과 시나리오 속에 등장하는 여러 모습을 내포한 인물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에 관해 토의·토론 학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분석까지 할 수 있게 된다.



5. 결론

지금까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적인 시각의 성장을 기본으로 요구하는 미디어의 문식성 육성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7학년과 8학년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미디어의 종류와 실제 교과서 내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습자의 문식성 능력 육성을 위한 방법에는 미디어를 활용해 실험적인 수업 방식을 실시해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되겠지만 그에 앞서 학습자들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교과서라는 점을 인식하여 이를 이용한 학습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필자는 먼저 학습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문식성의 기본적인 개념, 즉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에서 발전하여 여러 성격의 매체를 활용한 문식성의 확장적 개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한 다중적인 개념의 문식성을 살펴보려 하였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개념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보았듯이 문식성의 육성을 위해 사용된 다양한 미디어들을 단순한 수단적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개념인 미디어, 그것 자체를 교육과정 속의 교육 내용으로 명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미디어를 이용한 학습이 말하기·듣기의 범위에만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인접 학문과도 연관되어 학습 가능한 것이었다.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연계 학습을 통하여 말하기·듣기의 활용이 기본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국어의 다른 영역, 즉 읽기 능력과도 연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읽기 능력은 독서력과도 연관되었다. 많은 독서 경험은 학습자들의

배경지식이 되고 이러한 학습활동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여러 형태의 정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실제 필요한 정보로 탈바꿈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독서로 인해 학습자들의 올바른 정보 탐색 능력과 그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다시 말해 직접적으로 접하는 미디어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노출되는 즉, 광범위한 경로로 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넘쳐나는 정보로 인해 학습자들이 그 정보의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한 후 자신에게 맞는 정보로 재 정보화시키고 그 결과 학습자들 스스로 그 정보 중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내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의 이러한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교사 개입의 중요성까지 언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의 개입이란 학습자들의 활동을 억압하는 역할이 아닌 학습자들로 하여금 보다 올바른 방향 제시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하는 길잡이의 역할로 언급됨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미디어를 활용한 문식성 능력의 육성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여러 외국의 교육과정, 특히 호주의 ‘보기 과정’을 살펴보고 호주에서 지향하고자하는 바인 도구로써가 아닌 그 자체의 교육내용을 학습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교육 내용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미디어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호주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도구로써 미디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고 있음과 매체 활용에서 학습 활동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학문과 연계하여 매체 문식성 능력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체계가 잡혀있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외국의 미디어 교육의 환경을 살펴보고, 그 중 가장 성공적인 발달을 한 호주의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등장하는 여러 형태의 미디어를 분석해보았다.

앞서 언급한 매체 문식성 능력 육성을 위해 학습되어진 학습내용에는 다양한 미디어가 활용되었다. 여기서 활용되었다는 것은 도구로서의 활용이 아닌 그 자체가 교육내용을 갖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과서를 통해 학습자가 접할 수 있는 매체는 크게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가 있으며 이러한 매체들의 용어는 교육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용어를 활용함을 밝혀 실제 7, 8학년도 성취기준에 따라 등장하는 광고, 인터넷, 라디오, 토의·토론, 드라마 등의 매체의 활용까지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미디어들은 학습자의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이고 쉽게 노출되는 것들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실제 교수·학습 지도안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의 미디어 문식성 능력 육성을 위해서 학습자들에게 가장 쉽고 친숙한 방법으로 노출된다는 이유로 많은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광고를 활용한 단원의 실제 지도안을 통해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광고라는 미디어를 이용한 문식성의 학습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첫째, 미디어 그 자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제시되는 미디어가 인쇄나 영상이나 인터넷이나 하는 상위 분류에 따라 그 특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광고를 활용하여 학습할 때 얻어지는 여러 가지 경험을 제시해주었다.

다음으로 일관성을 위해 광고 단원을 가져온 같은 교과서, 방인호외(2011) 지학사 국어 교과서 7학년 1학기에서 학습자의 문식성 능력 육성을 위한 단원으로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토론 학습단원을 분석해보았다. 인터넷 미디어는 동일 교과서인 방인호외(2011) 지학사 국어 교과서의 8학년 2학기의 지도안을 통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 단위에서는 인터넷이란 미디어를 바탕으로 학습의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자가 주도해야 하는 토론이란 활동이 접목되어 있는 활동을 경험해봄으로써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인터넷 상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하여 실제 경험하게 되는 토론의 절차상의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단순히 제시된 미디어의 학습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수적인 지식까지 얻을 수 있게 하였다. 교과서 분석 시 동일 학년에서 그 기준으로 삼은 광고와 인터넷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한 인접학문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틀은 7학년 교과서의 내용으로 하고 동일 출판사의 8학년 교과서에 같은 미디어가 등장할 경우 함께 살펴보는 형식을 취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문식성 활용의 내용인 인접학문과의 연계성에 관해 살펴보기 위하여 읽기 교육의 성취 기준을 통하여 미디어의 특성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활용한 미디어 문식성 능력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하고 교과서라는 한정된 내용 안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미디어를 문식성 능력 육성을 위한 도구로 이해하거나 실제 수업에서 사용되는 텍스트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한 하위개념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미디어들을 문식성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 혹은 내용체계로 이해하고 이를 이용한 여러 인접학문과 관련하여 학습하도록 학습자들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문식성 능력은 비단 사진, 도표, 그림 등의 작은 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길러질 수도 있고 보다 넓은 의미인 인쇄, 영상,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해서도 길러질 수 있다. 이는 미디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문식성 능력이 달라짐을 뜻한다. 앞으로의 교육과정은 지금보다 더 학습자 위주의, 경험위주의, 통합 학문을 위한 교육 체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변화하는 교육 과정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학습을 통해 접하게 될 다양한 미디어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러한 미디어를 적절한 활용하

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과정과 교과서

- 교육인적자원부 국어과 교육과정 고시 제2007-79호.
교육인적자원부 국어과 교육과정 고시 제2009-41호.
방민호 외(2010), 「국어교과서 1-1」, (주)지학사.
방민호 외(2010), 「국어교과서 1-2」, (주)지학사.
방민호 외(2010), 「국어교과서 2-1」, (주)지학사.
방민호 외(2010), 「국어교과서 2-2」, (주)지학사.
방민호 외(2010), 「국어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1-1」, (주)지학사.
방민호 외(2010), 「국어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1-2」, (주)지학사.
방민호 외(2010), 「국어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2-2」, (주)지학사.
이승원 외(2010), 「국어교과서 1-1」, 좋은책 신사고.
이승원 외(2010), 「국어교과서 1-2」, 좋은책 신사고.
이승원 외(2010), 「국어교과서 2-1」, 좋은책 신사고.
이승원 외(2010), 「국어교과서 2-2」, 좋은책 신사고.
조동기 외(2010), 「국어교과서 1-1」, 비상교육.
조동기 외(2010), 「국어교과서 1-2」, 비상교육.
조동기 외(2010), 「국어교과서 2-1」, 비상교육.
조동기 외(2010), 「국어교과서 2-2」, 비상교육.

논문 및 단행본

- 강민지(2007), 「책의 인터페이스와 글쓰기 공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21 사업단 주체 제3회 대학원생 논문발표회.

- 김기석(2002),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국어과 교수 학습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대행(1998), 「매체 언어와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봄학술대회 발표집.
- 김대행(1998),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다매체시대의 국어교육 발표 자료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김성문(1999), 「영상커뮤니케이션의 성립과 교육에 관한 서론적 일고」, 정보화시대 방송교육, 나남출판사.
- 김양은(2009),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원영(2009), 「미디어 리터러시의 활용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의 신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희동(2005), 「국어 교과에서의 미디어 교육 수용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맹명관(1999), (초보자와 함께하는)광고노트, 더난 출판사.
- 박가혜(2007), 「한국과 호주의 미디어 교육 비교 연구 :자국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 박기범(2001), 「영화의 문학 교육적 수용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 박원경(2009),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국어과 교수·학습 방안 연구 :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인기 외(2000),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원.
- 변혜정(2001), 「매체 언어 교육의 국어과 수용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은주(2000), 「인터넷 학습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조사 및 그 활용

-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영아(2002), 「광고 언어를 활용한 국어 교육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스가야 아키코, 안미라 역(2001),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 심상민(2003), 「국어과 내 미디어 교육 수용 현황 및 수용 방향 연구」,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정임(1998), 「미디어교육의 한국적 모델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회.
- 안정임·전경란(1999), 「미디어 교육의 이해」, 한나래.
- 여건중(2005), 「시장사회, 문화적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비평과 이론.
- 윤정민(2003), 「매체 문식성 교육을 위한 국어과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화(2002), 「광고를 활용한 국어교육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인제 외(2005),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재형(2004), 「국어과에서의 미디어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이종철(1998), 「대중 매체의 언어 메시지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 8집, 국어교육학회.
- 정연신(2004), 「광고 텍스트를 이용한 국어능력 신장방안 연구 : 텔레비전 광고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용완, 배영(2008), 「멀티플미디어 리터러시」, NIDA 이슈리포트 2008-2, 한국인터넷진흥원.
- 채영희(2003), 「(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말하기·듣기 교육의 실제」,

부경대학교 출판부.

최민아(2007), 「광고 텍스트의 국어 교육적 수용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직규(2007), 「미디어 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 방안 연구 : '보기
(Viewing)'와 '보여주기(Presentation)'를 중심으로」,전주
교육대 교육대학원.

최지현(1998), 「매체와 독서교육」, 독서지도자 양성과정 연수교재, 서울시
교육청.

최창섭(1980), 「방송언어 오용실태에 관한 연구 : 시청자 태도를 중심으
로」, 동국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최창섭(1998), 「미디어 교육관련 연구 경향 고찰」, 한국언론학회.

